

성인자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이 노모와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Adult Children's Differentiation of Self and
The Healthy Family-of-Origin on The Solidarity with Aged Mother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조교수 이 신 숙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차 용 은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 Shin-Sook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

Prof. : Yong-Eun, Cha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al between the self of differentiation of adult children's, the healthy family-of-origin, and the solidarity with aged mother.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as used in this research.

The sample was taken from 356 adult children in Chonnam and Suncheon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 1) The total points of the self of differentiation of adults children's was 108.7, which was higher than the median 90. And the total points of the healthy family-of-origin was 107(median:84). And the total points of the attachment with aged mother was 30, which was higher than the median 24. And the total points of the conflict with aged mother was 22.8, which was lower than the median 27.

- 2) The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attachment with aged mother were the healthy family-of-origin, the self of differentiation, educational level and R^2 of such variables are 30%. The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conflict with aged mother were the healthy family-of-origin, the self of differentiation and R^2 of such variables are 29%.

I. 서론

의학의 발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의 질적 향상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97년 현재 남자의 평균수명은 70.6세, 여자의 평균수명은 78.1세(통계청, 1999)로 노년층의 증가속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년층의 이러한 증가에 비해 출산력의 상대적인 감퇴는 노인부양 문제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게다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과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는 가족의 노부모부양 기능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어 이들의 의료 및 사회적 보호문제는 노인복지제도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여 가족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었던 노인의 위치는 이와같이 여러가지로 불안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부양이 한계점을 보이면서 '선가정' '후사회'라는 일변도의 정책에 밀려 노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은 자식의 의무이자 도리로 여겨 여전히 가족은 노인부양의 원천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에 있어서 성인자녀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노부모부양에 관한 연구들(박경란, 1988; 서병숙, 1988; 송현애, 1986; 신효식, 1993; 이신숙, 1994; 임춘희, 1987)은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애정적 유대감이 성인자녀가 행하는 부양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부양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자녀 간의 갈등도 부모-자녀 관계가 애정이 근간이 되어 수립되었을 때 그 해결이 용이하다고 밝혀 노부모-성인자녀 간에 맺게 되는 관계의 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노부모-성인자녀 간에 맺게 되는 유대감

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갖는 가정환경과 이에 따른 생활경험에 의해 다양하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장시의 다양한 가정배경은 개인마다 다른 자아분화 수준을 유지케하며 원가족에 대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정도도 차이가 나게 하고 있다.

개인의 성장초기에 가족원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아분화는 성장 후 그들의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러 학자들의 관심대상이었다. 자아분화는 사고와 감정 간의 분화로 사고와 감정이 잘 분화된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과 친밀한 정서적 접촉을 하면서도 확고한 자아정체감과 독립성을 유지한다(송정아·최규련, 1997). 그러나 자아의 미분화 정도가 심한 사람은 정서와 지성이 용해되어 있어서 그의 생활은 주위사람들의 감정에 의해 쉽게 지배가 되며 역기능에 빠진다(장혁표 외 3인, 1992). 따라서 노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인자녀의 자아분화의 정도는 노부모와의 관계를 애정적인 국면으로 유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갈등의 국면으로 유도하느냐라는 정서적 자주성과 노부모부양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환경을 지닌 원가족 속에서 성장한 개인의 경우에는 가족원간의 관계가 친밀한 동시에 개인적인 자주성과 개성이 존중되어 가족원 각자의 정체감이 발달되기 때문에(전춘애, 1994) 원가족의 환경은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생식가족을 이룬 뒤에도 노부모와의 유대를 비롯한 전 가족원 상호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아분화와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개념이 성장 초기 그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들 변인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 결혼적용,

부부갈등과 대처행동, 자아존중감,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고현선, 1994; 금은순, 1996; 전춘애, 1994; 제석봉, 1989; Mee-Galk, 1991)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부양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유대감에 성인자녀의 자아분화 정도와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관계 증진과 더불어 더 나아가 효과적인 부양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인자녀의 자아분화 수준,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 및 노모와의 유대감(애착, 갈등)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모와의 유대감(애착, 갈등)은 성인자녀의 배경변인, 자아분화 수준 및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 정도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노모와의 유대감(애착, 갈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의 개념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Bowen이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서 생물은 2가지 상반되는 "생명력(life forces)"에 의해 유발되고 조절된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유기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르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실체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인 개별성(individuality)이라는 것과 타자의 의지에 따르고 의존적이며 공동체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인 집단성(togetherness)이라는 것이다. 유기체인 인간도 적절히 기능하기 위하여 개별성과 집단성이라는 두 욕구 간의 배분을 조절하고 관리함에 있어 정서적 분리를 성취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자아분화라 한다(이선휘, 1998).

그런데 Bowen(1976)은 개인의 자아분화는 사고와 느낌을 분리시킬 수 있는 정신 내적 경험과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켜 사고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인간관계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및 가족 성원이 갖는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즉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 및 가족은 객관성, 독립성 그리고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며(전춘애, 1994) 타인과 친밀한 정서적 접촉을 하면서도 확고한 자아정체감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가정의 조화를 위하여 또는 강요에 의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화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송정아·최규련, 1998) 자기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미분화된 가족자아 집합체, 또는 융합(fusion)이라고 불리우는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사고와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어 자아개념의 발달이 미약하고 긴장이나 불안 때문에 정서적 균형이 어려우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갈등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상처받기 쉽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아분화는 인간 정신내에서의 지적체계와 정서적체계의 분리 및 타인으로 부터 자신의 분리로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건강가족(healthy family)

가족은 개인이 나서 자라며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보금자리이며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인간 발달의 근원이다. 따라서 각 가정마다 그 가족이 갖는 고유한 생활습관이나 행동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마다의 분위기에 따라 가족의 건강도는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건강가족이란 기능적인 가족으로서 가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며 때에 따라서는 외부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며 가족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의 사회적

을 고무하는 가족이다(Bloom, 1985).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족건강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실증적 조사와 더불어 연구가 되고 있다. 건강가족은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가정(유영주, 1991)으로서 연구자에 따라 강력한(strong), 정상적인(normal), 기능적인(functional), 적합한(adequate), 건전한(soundness) 가정으로 통용되고 있다.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족치료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Fisher와 Sprenkle(1978)에 의하면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이 존중되고 인정되며 안정감을 느끼는 가족이라고 하였으며 Stinnett 등(1977)은 자아성취 또는 자아실현은 일생에 걸쳐 건강한 가족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족원 모두가 서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어 행복도가 높은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였다(어은주·유영주, 1995에서 재인용). 서병숙(1994)도 건전가정이란 가족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족가치관과 가족체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가족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개념등을 볼 때 건강가족이란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원간에 상호만족감을 증진시키며 개인의 잠재력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는 가족이라 할 수 있다.

3. 성인자녀-노부모 간의 유대

부모-자녀 관계는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지속되는 가장 긴 기간 중의 하나로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 규범을 형성하고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자녀가 자신을 계승한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갖는다. 이와같이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의 인생초기에서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지대한 상호영향 아래 놓이게 되며 도움과 의존이라는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다(김태현, 1995).

인간발달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며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지배하에서 점차 독립하게 된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기

에 도달하고 부모가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이들의 관계는 역할역전이 이루어져 초기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던 도움의 균형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상호의무와 가족결속에 기초하는데 가족의 결속은 가족이라는 집단 또는 가족원간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유대, 즉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뜻한다(김태현, 1995). Bengtson과 Kuypers(1971)의 연구에서는 특별한 가족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감정을 "유대"라는 용어로 그리고 가족과 같은 전체 집단내에 존재하는 감각을 "결속력"이라는 용어로 구별한 바 있다.

이와같이 유대(solidarity)라는 개념은 응집력(cohesion),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유사한 가치관, 통합(integration), 호혜성(reciprocity), 교환(exchange), 상호성(mutuality)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유대는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접촉의 빈도, 거주 근접성, 상호 도움의 정도 등의 양적측면을 나타내는 객관적 유대관계와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친밀감과 애정의 정도, 내재화된 규범 등 질적측면을 중요시하는 주관적 유대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의례적인 가족만남, 전화, 편지등을 통한 접촉, 일상생활 돌보기와 같은 세대간의 객관적인 상호작용이 노인의 심리적인 복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신효식, 1993; George, 1989) 세대간의 친밀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상호부조가 일방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도움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에는 오히려 세대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한다. 따라서 노부모복지를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유대는 애착과 갈등에 의해 좌우되는 질적 상호작용인 주관적 유대감이다(Markides & Krause, 1985; Shannas, 1980).

애착(attachment)은 인생초기인 유아기에는 자신의 요구에 언제나 반응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이 내재되어 어머니와의 신체적접촉, 대화, 미소 등으로 나타난다면 성인기에는 정서적 친밀감과 접촉을 뜻

하는 주거의 근접, 정기적인 방문, 지지, 자식의 의무감 등의 형태를 달리한 애착행동이 나타난다. 애착의 성인모델에 의하면 일단 형성된 애착의 감정은 시간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했던 과거의 추억과 취미의 공유와 같은 상징적 의미와 전화나 편지 등으로 지속이 된다. 따라서 가족내 애착대상을 많이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성공적인 노후나 행복의 감정을 갖는데 노부모들은 그들의 주된 애착대상으로 자녀와 형제·자매들을, 성인자녀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리적인 간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를 거론하였다(Troll & Smith, 1972).

이와같이 애착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선호하며 접근하고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애착이 유아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형태를 떠나 성인이 되면 역으로 노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부모의 의존에 대해 성인자녀의 도움제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애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노부모와의 거주지가 가깝고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애착행위는 증가한다(송현애, 1986; Rossi & Rossi, 1990). 이렇듯 성인자녀가 갖는 노부모에 대한 애착의 감정은 서로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부여하며 특히 노부모에게는 심리적 복지감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갈등(conflict)은 애착이 서로간에 갖는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갈등은 부정적인 감정이다. 가족관계 중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을 크게 두가지로 설명한 김태현(1995)은 그 요인으로 세대간의 차이와 노부모의 의존성을 들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부모가 지닌 전통적인 가치관과 자녀세대가 갖는 개인주의 및 미래지향적인 사고는 서로 일치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목과 갈등을 야기하는데(서병숙, 1991), 윤진(1985)은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의견, 가치, 태도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세대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노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의존-독립의 균형이 자녀쪽으로 기울면서 부양자녀는 부담감을 갖게 되고 성인자녀가 실

제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느끼는데 노부모가 과도하게 의존적이고 개입적이며 자녀의 사생활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갈등을 표출한다고 하였다(Cicirelli, 1983; Simos, 1973).

이와같이 노부모를 돕는 성인자녀의 도움에 애착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노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양자에게 호혜적이지 못하면 노부모의 의존을 과도하게 느끼며 부담을 갖게되며 갈등은 증가하게 된다.

4. 성인자녀의 자아분화, 원가족의 가족건강도와 노부모와의 유대감 간의 관계

Bowen에 의한 자아분화의 개념과 더불어 노부모와의 유대를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 정서적단절이라는 개념이다. Bowen은 근원가족과 융합된 사람인 근원가족을 떠날 때 가족 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삼각관계의 정도가 높을수록 분화수준은 낮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의 사람은 근원가족과 정서적 단절이 어려워 근원가족에 대한 관여는 더 많으며 분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거나(정혜정·이형실, 1997) 정반대로 자녀가 부모결을 떠날 때 부모와 완전히 거리를 두거나 같이 살더라도 자신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킨다고 한다. 즉 그리고 부모를 거부하며 대화를 피하거나 정서적으로 자신을 고립화시키고 부모가 중요시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나타낸다. 이와같이 부모와의 단절이 심한 자녀일수록 자신의 긴장과 문제가 부모 탓이라고 보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서 긴장을 최소화시킨다(송정아·최규련, 1998). 그러나 정서적 단절의 이상적인 상태는 내면지향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며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며 핵가족과 확대가족을 멀리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내적 자유와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일생동안 추구할 수 있다(정혜정·이형실, 1997).

성인자녀의 자아분화의 정도와 노부모와의 유대감 간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아분화와 결

혼만족도 및 부부적응, 부부갈등과 대처행동, 정신 건강,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전춘애, 1994; 제석봉, 1989; Mee-Galk, 1991)은 자아분화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따라서 부부간의 적응도도 높으며 결혼 및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갈등도 적으며 스트레스 발생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개인 내적 통제가 잘된다고 하였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연구들(Framo, 1976; Bowen, 1978; Lane et al, 1988)은 건강한 가족환경에서 성장한 개인들의 밝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건강한 가족은 개인들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 자아성취감, 대인관계 기술등을 향상시키며 자신이 새로 형성하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Lewis et al(1976)에 의하면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적응력이 우수하며 다방면에 있어 능력이 뛰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연구한 Kleiman(1981)은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자율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부모와 더 효과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부의 결혼적응과 출생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 불일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Wilcoxon와 Hovestadt(1985)는 출생가족에 대해 지각하는 정서적 건강수준이 부부양자가 일치하는 경우 결혼생활에 잘 적응할뿐더러 지속기간도 길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원가족의 건강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Cunningham(1991)은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결혼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Gilligan(1982)는 원가족 환경의 영향력은 남성에게 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지대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청년이 출생가족 특히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 부적응적 행동을 많이 나타냈으며(Hoffman & Weiss, 1987) 출생가족과의 관계에서 융합과 통제가 심할수록 불안은 증대되며 청년들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Bengtson, et al, 1993).

이들의 연구를 볼 때 성인자녀의 자아분화가 원

활히 이루어진 경우 노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자율성을 잃지 않고 정서적 친밀감을 가질 수 있으며 건강한 가족내에서 성장한 개인들이 생활환경에 적응해 가는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성인자녀의 자아분화의 정도와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 정도가 노모와의 유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1) 자아분화 척도

자아분화 척도는 고현선(1994)이 제작한 3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에 대한 점수는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그렇다'의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총점분포:36점-144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분화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 이었다.

2)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척도는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이 제작한 Family-of-Origin Scale(FOS)를 수정한 전춘애(1994)의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모두 25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분포를 나타내는 5점 Likert척도로 총점의 분포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3) 노모-성인자녀 간의 애정적유대척도

노모와의 유대는 성인자녀로 하여금 친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애착과 갈등척도

는 이신숙(1994)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척도는 하위영역으로 애착과 갈등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애착척도는 8문항(총점분포: 8점-40점)이었으며 갈등척도는 9문항(총점분포: 9점-45점)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점수는 '항상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애착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갈등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1999년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남과 순천시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396부였으나 기제가 부실하거나 응답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356부를 본 연구를 위한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 t 검정,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성인남녀의 자아분화,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 노모에 대한 애정적유대(애착, 갈등)의 정도

성인남녀의 자아분화,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 노모에 대한 애정적유대(애착, 갈등)의 정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남녀의 자아분화의 정도는 108.6점으로 중앙치인 90점보다 높아 성인남녀의 자아는 높게 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별 자아분화의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정도는 107점으로 중앙치인 84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그들의 원가족에 대한 지각은 매우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남녀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기혼여성들의 점수는 112.6점으로 기혼남성들의 점수인 101.4점보다 높아 원가족에 대한 지각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에 있어서는 애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도(%)	변 인	구 분	빈도(%)
성 별	남	181(50.8)	동 거 여 부	동거	69(19.4)
	여	175(49.2)		별거	287(80.6)
연 령	20대	74(20.8)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90(25.3)
	30대	99(27.8)		고 졸	152(42.7)
	40대	101(28.4)		대졸이상	114(32.0)
	50대 이상	82(23.0)	경 제 수 준	100만원미만	65(18.3)
형 제 자매수	0~4명	148(41.6)		100-149만원	78(21.9)
	5명이상	208(58.4)		150-199만원	117(32.9)
출 생 순 위	장남·장녀 차남·차녀 막내·외동이	138(38.8)	건 강 상 태	좋지못함	87(24.4)
		158(44.4)		대체로건강	247(69.4)
		60(16.9)		매우건강	22(6.2)
종 교 유 무				유	162(45.5)
				무	194(54.5)

〈표 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애착, 갈등)의 정도

변 인	남성(N=181)	여성(N=175)	전체(N=356)	
	M(SD)	M(SD)	t 값	M(SD)
자아분화의 정도	107.2(13.3)	110.2(12.3)	0.26	108.6(12.9)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정도	101.4(10.1)	112.6(9.6)	6.91**	107.0(9.9)
애정적유대	애 착	30.9(5.05)	3.75*	30.0(5.5)
	갈 등	23.0(5.92)	0.41	22.8(4.1)

* p <.05, ** P <.01

착이 중앙치인 24점보다 높은 30점을, 갈등의 경우에는 중앙치인 27점보다 낮은 22.8점을 나타내 노모와의 애정적 유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에 있어서는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애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딸의 경우 기혼아들보다 노모와의 애착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는 노부모는 아들보다 딸에게 좀 더 편안함을 느껴 정서적으로 만족한다는 연구결과(유영숙, 1985; 장선주, 1989)와 일치한다.

2. 기혼남녀의 배경변인, 자아분화의 정도,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 정도에 따른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애착, 갈등)와 영향력

성인남녀의 배경변인, 자아분화의 정도,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정도에 따른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애착, 갈등)와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진단과정으로 잔차분석을 통한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한 결과 1.945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간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인중 성별, 출생순위, 노모와의 동거 여부, 종교유무, 직업유무는 명목변수이므로 가변수화 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에 있어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정도($\beta=.4754$)가 27%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다음은 자아분화 수준($\beta=0.1544$), 교육수준($\beta=0.1172$) 순이었으며 이 변인들은 노모와의 애착을 30% 설명해 주었

다. 즉 원가족에 대한 지각이 건강할수록, 기혼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모와의 애착의 정도가 높았다.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에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정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Kleiman(1981)이 밝힌 건강한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보다 부모와 더 효과적인 연합을 하고 있으며 세대간의 관계도 더 명확하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높은 가족원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친밀하며 개인적인 자주성과 개성이 존중되며 각자의 정체감이 발달된다는 전춘애(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자아분화의 정도에 의해 노모와의 유대가 발달된다는 본 연구결과는 성숙된 성인자녀는 부모와 개별화되어 있으면서도 친밀하고 상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신의 다른점을 구분하여 수용·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다는 White와 Speisman(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에 대해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정도가 자아분화의 정도에 비하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고유성과 개별성보다는 친밀감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가족문화가 갖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립을 성숙의 척도로 삼는 서구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표 3〉에서는 노모에 대한 기혼자녀의 갈등의 정도가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노모와의 갈등에도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정도($\beta=-.5301$)가 28%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다음은 자아분화 수준($\beta=-.1054$)이었으며 이 변인

〈표 3〉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애착, 갈등)에 대한 제변수의 영향력

변인	애정적유대					
	애착			갈등		
	B	β	Partial R ²	B	β	Partial R ²
성별	-1.2814	-0.1152		0.5705	0.0480	
연령	-0.4213	-0.0804		0.2689	0.0481	
형제자매수	0.5985	0.0530		0.1182	0.0098	
출생순위	-0.6118	-0.0536		-0.1580	-0.0129	
동거여부	-0.6340	-0.0450		-1.3678	-0.0911	
교육수준	0.8417	0.1172*	0.01	-0.1828	-0.0229	
경제수준	-0.3611	-0.0687		0.4106	0.0732	
건강상태	0.1679	0.0157		-0.2540	-0.0223	
종교유무	0.2135	0.0191		-0.0227	-0.0019	
직업유무	0.1943	0.0160		-0.8199	-0.0633	
자아분화의 수준	0.1607	0.1544*	0.02	-0.1544	-0.1054*	0.01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정도	0.2642	0.4754***	0.27	-0.3169	-0.5301***	0.28
회귀상수		8.54			8.52	
R ²		0.30			0.29	
F		12.47***			12.14***	

가변수화(Dummy) 성별 : 남성=1, 여성=0
 동거여부 : 동거=1, 별거=0
 직업유무 : 직업 有=1, 직업 無=0

출생순위 : 장남·장녀=1, 그 이외의 경우=0
 종교유무 : 종교 有=1, 종교 無=0

* P <.05, ** P <.01, *** P <.001

들은 노모와의 갈등을 29% 설명해 주었다. 즉 원가족에 대한 지각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기혼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때 노모와의 갈등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에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과 자아분화 수준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의 자아분화 정도와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정도가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유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노부모-성인자녀간의 유대감 증진과 더불어 이에 의한 효과적인 부양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남과 순천시에 거주하는 성인기혼

남녀 356명(남:181명, 여: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검정,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남녀의 자아분화의 정도는 108.6점으로 중앙치인 90점보다 높아 성인남녀의 자아는 높게 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별 자아분화의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정도는 107점으로 중앙치인 84점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그들의 원가족에 대한 지각은 매우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남녀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기혼여성들의 점수는 112.6점으로 기혼남성들의 점수인 101.4점보다 높아 원가족에 대한 지각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남녀의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에 있어서는 애착이 중앙치인 24점보다 높은 30점을, 갈등의 경우에

는 중앙치인 27점보다 낮은 22.8점을 나타내 노모와의 애정적 유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에 있어서는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애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갈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에 있어 먼저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정도($\beta=.4754$)가 27%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다음은 자아분화 수준($\beta=0.1544$), 교육수준($\beta=0.1172$)의 순이었으며 이 변인들은 노모와의 애착을 30% 설명해 주었다. 즉 원가족에 대한 지각이 건강할수록, 기혼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모와의 애착의 정도가 높았다.

노모와의 갈등에도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의 정도($\beta=-.5301$)가 28%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다음은 자아분화 수준($\beta=-.1054$)이었으며 이 변인들은 노모와의 갈등을 29% 설명해 주었다. 즉 원가족에 대한 지각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기혼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때 노모와의 갈등의 정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노부모-성인자녀 관계는 전통적인 효개념에 의거한 규범에서가 아니라 상호간에 호혜적이고 애정이 기반이 될 때 갈등이 적게 지각될 뿐 아니라 오랜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유대감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인생초기부터라고 여러 가족관련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음을 볼 때 부모-자녀 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친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애정적유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의 지각이라는 것을 볼 때 자애롭고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가 출가하기 전 그들의 성장배경이 되었던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통한 건강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가족문화에 적합한 건강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의 개발은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부모됨 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등을 활용한 실천교육도 더불어 병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아니었지만 성인자녀의 경제수준이 높을 때 오히려 노모와 갈등이 많아진다는 결과는 '가난이 병이다'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노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자녀에 대한 의존감이 커질 때 더 많은 갈등은 야기된다고 하는데 자녀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과는 달리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노부모와 자식간의 사회적 거리감으로 인한 사회적 분리현상이라고 사료된다. 부모들은 잘사는 자식보다는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많은 연민을 가진다고 하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자기 위주의 사고로 모든 일을 대하는 현실에서도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부모사랑이 아닌가 싶다. 이렇듯 자녀에 대해 베풀어 주고만 싶은 부모의 자식사랑(내리사랑)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도록 미래세대에 대한 '효'의식의 함양교육은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차원에서는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고 대인관계 차원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개념인 자아분화의 정도는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와는 달리 노모와의 애정적유대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합과 분리의 균형적 문제를 다루는 자아분화의 개념이 분리의 개념에 더 비중을 두는 서구의 개인주의 사고와 더 통용이 가능하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가족관계에서는 영향력이 덜하지 않나 사료된다. 따라서 노모와의 갈등을 줄이면서 애정적유대를 증진시켜 노부모부양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했던 본 연구를 위해서는 자아분화라는 변인보다는 노모-성인자녀간의 유대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 변인의 선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노모와 기혼자녀간의 유대감의

정도와 유대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기혼자녀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에 쌍방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기혼자녀 중심의 결과 해석이 이루어졌음을 본 논문의 제한점으로 밝히고 싶다.

■ 참고문헌

- 1) 고현선(1994). 부부의 자아분화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태현(1995). 노년학. 서울:교문사.
- 3) 박경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_____(1991). 노인연구. 서울:교문사.
- 6) _____(1994).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 가정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75-280.
- 7) 송정아·최규련(1998).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 하우.
- 8)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신효식(1993).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 탐색.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어은주·유영주(1995).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45-156.
- 11) 유영숙(1985). 자녀와의 등.별거에 따른 노인문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유영주(1991).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4.
- 13)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14) 이선혜(1998). 한국에서의 Bowen 이론적응에 대한 고찰 : 자아분화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2), 151-176.
- 15) 이신숙(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노모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임춘희(1987). 분거한 도시장남의 부양의식 유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장선주(1989).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장혁표·제석봉·김정택(1992). 가족치료-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 19)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 정혜정·이형실 편역(1997). 가족치료-체계론적 통합-. 서울 : 하우.
- 21)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2) 통계청(1997). 1971-1997 생명표 작성결과.
- 23) Bengtson, V.L., & Kuypers, T.A., (1971). Generational difference and the development stak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49-260.
- 24) Bloom, B.L.(1985). A factor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 25)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J.Guerin(Eds.),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 26) Brody, E.M., & Schoonover, C.B.(1986). Patterns of care for the development elderly when daughters work and when they do not. *The Gerontologist*, 26, 372-381.
- 27) Cicirelli,V.G.(1983). Adult children and their elderly parents. In T.H.Brubaker(Eds.), *Family relationship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lif. : Sage pub.
- 28) Cunnington, B.D.(1991). The relationship of origin and one's achievement of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to one's current marital adjustment. Univ. of Toronto,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3(8), 26-87.
- 29) Framo, J.J.(1976). Chronicle of a struggle to

- establish a family unit within a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In P.J.Guerin(Ed.), *Family Therapy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 Gardner Press.
- 30) George, L.K.(1989).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ver the life course. In K.S.Markides & C.L.Cooper(Eds.), *Aging, stress and health*, New York : John wily & sons.
- 31)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32) Hoffman, J.A., & Weiss, B.(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 in college students. *J.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57-163.
- 33) Kleiman, J.(1981). Optimal and normal family functioning. *The American J. of Family Therapy*, 19, 37-44.
- 34) Lane.A.R., Wilcoxon, S.A., & Cecil, J.H.(1988).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considerations for marital and family therapists. *Family Therapy*, 15, 19-27.
- 35) Lewis, J., Beavers, W.R., Gossett, J.T., & Phillips, V.A.(1976). *No single thread :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 New York : Brunner/Mazel.
- 36) Mee-Gaik, Ng(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y like, Healthy unlike, unhealthy like, unhealthy unlik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
- 37) Rosental, C.J.(1985). Kinkeeping in the familial division of labor. *J. of Marriage and Family*, 47, 965-974.
- 38) Rossi, A.S., & Rossi, P.H.(1990). *Of human bonding :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39) Sherman, S., Ward, R., & LaGory, N.(1988). Women as caregivers of the elderly : Instrumental and expressive support. *Social Work*, 33, 164-167.
- 40) Simos, B.G.(1973). Adult children and their aging parents. *Social Work*, 18, 75-85.
- 41) Troll, L., & Smith, J.(1972). Three-generation lineage change in cognitive style and value trai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San Juan.
- 42) Wilcoxon, S.A., & Hovestadt, A.J.(1983). Perceived similarity in family-of-origin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dyadic adjustment for married couples. *J.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431-434.